

가작

임호균(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밤사이 푸른 하늘 아래 별거벗은 나무

하늘이
드높고
드넓어서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려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아침 사이 파란 하늘 아래
교과서 사이 머리칼 한 올
깨진 술병 사이 손톱 한 조각
남기고 집을 나서며

일기처럼 가벼워지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면
어느 날

에스키모인은 화가 나면 집을 나와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돌아오는 길은 이해와 용서의
길……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수시로 집을 박차고 나왔다 계획 없이

울 장소를 찾는 중

날이 좋아 기차길에 누워 눈을 감았다 찌는 듯한 여름 하늘 아래 한 마리 새 지저귐다
얼마 전, 오래된 이 기차역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열차에 몸을 던졌다 뛰어오르는 순간 그
는 세상에 짧은 말을 남겼다

“저 너머에 미래가 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결단코 안전선을 넘지 않는다 누구도 없는 기차역에 불어오는 빈 바
람

내가 옷을 벗어 선로 위에 놓을 때

CCTV를 확인하던 역무원은 황급히 달려와 나를 기차역 밖으로 내쫓았다

조금 전 이곳을 지나친 사람의 향수는 무엇일까 천둥 치는 지금의 길 한복판에서 험거운 비닐우산을 펼쳤다 거리의 사람들은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이따금 스쳐보고 지나갔다 오랜 시간

부재중 전화는 오지 않았고 이 밤거리는 지루하고 고요해서 쓸쓸한 냉동고에 갇힌 것 같은

마음은 감기인 걸까? 오랜 기간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바지를 벗어 신호 걸린 자동차 보닛에 올려놓았다 경적이 길게 울린다

하늘이
드높고
드넓어서

내가 여기에 없음을 알려요

경적을 피해 빛을 잡듯 한 곳으로 달려갔다 가장 좋은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람들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 나무가 되어 지켜본다는 숲 나를 둘러싼 나무들 중심에서 하늘을 향해 콧 부르짖었다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데까지 울리는 메아리

결국에는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목소리

덤불 속을 획 획 지나갔고 우거진 수풀을 한 꺼풀 벗겨냈을 때 눈 앞에 펼쳐진

밤사이 푸른 하늘 아래 끝 모를 들판과 벌거벗은 나무, 나는 속옷을 벗어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쳐놓았다 너무 많은 것이 보이는 안경도 땀에 흠뻑 젖은 심장도

오랫동안 벌거벗은 나무를 한 아름 끌어안았다

구름의 속도로 불어오는 바람에 들풀은 오래도록 흔들린다 저 먼 곳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나무들

언제 와요?
나를 녹여줄 여름

악마야 이리 온

나는 악마가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빛의 속도로 땅에 꽂혔고

나는 가벼운 운석을 들어 올리듯
악마를 일으켜서
웅성거리는 사람들로부터 빠져나왔다

죄목이 무엇이더냐
악마의 옷매무시를 정리해 주며 물었고
속삭이기입니다
형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악마는 답했는데

속삭이는 건 무엇이더냐 다시금 물으면
그건 생각을 뒤흔들어 악에서 선으로 인내에서 혈기로 평생 땅을 치며 뉘우치도록 피는
것인데 실은
추락하면서 내 날개가 떨어져 나갔고 어느 틈에 맨투맨과 추리닝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습
니다 그리고 배고픔니다

국밥집으로 가서 국밥 두 그릇을 시켰다
다 먹고 계산하는 틈을 타 악마는 다시금
속삭이고 있다 다투던 애인은
좋은 말을 하다가 단숨에 애인의 뺨을 후려쳤다
나는 창밖의 모습을 얼마간 바라보다가

따워야
이리 온

악마의 구레나룻을 들어 올렸다
네 이 녀석아
마음을 빼앗긴 자는 뺏어 간 자의 마음대로 살아간단다
서로의 눈꺼풀을 지그시 덮어주던
우리는 말없이 걷자, 하고 그저 걸었다

* 누가복음 10:18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여긴 올바른 습관을 지닐 곳 같아요
비롯된 미래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악마는 집안 가득 널브러진 책을 뒤적이고 있었다
등을 보인 악마를 지나쳐 화장실에 들어갔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남몰래 신발을 구겨 신고 있는 악마
내 맘 활활 타네 또

이리 온
이 시대 소경아

붙잡은 악마의 손은 떨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너는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선을 밀면서 이동하니?
세계를 그렇게 살아가니?

이 일말의 불안감
가득한 악마의 낮빛

창 너머로 저 멀리 어느 하늘의 해가 서서히 저무는데

“눈을 감았다
떠보세요”
목전에 펼쳐진 광활한 사막에서 저마다 보따리를 짊어진 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악마의 속삭임으로 만들어낸 무언의 꿈이라는 것쯤은
악마도 그 균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리라는 것쯤은

“세계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아버렸어요
뜻 있는 한 되살아날지니
저는 이만 죽으러 갈게요
그리고
내일 다시 태어날게요
밝은 빛의 꽃이 될게요”

내 눈을 바라보던 악마는 이윽고 뒤돌아 여름의 뒤편길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나는
알았다
기쁘다

큐롱 씨는 큐롱하고 큐롱해

당신은 스스로 밥상을 차린 적이 있습니까?

큐롱 씨는 어느 날 옆 테이블에서 들었던 그 말이 휴일인 지금의 배달 음식 앞에서 오래
오래 떠오르고

큐롱 씨는
밥을 먹다 불현듯 거울 앞에서
중얼, 중얼……
큐롱은 예고
예고는 큐롱……
주변에 질서 없이 군데군데 널브러진 잡동사니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큐롱 씨
지금의 봄, 어디로든 갑시다

벚꽃잎이 떨어지는 속도가 초속 오 센티미터란다
흩날리는 꽃잎이 큐롱 씨의 손가락 사이사이로 가벼이 빠져나간다
양쪽으로 마주 손 잡은 인간이 한가득

야 네 남친
지나간다

큐롱 씨는 고개를 돌렸으나
너무 많은 인간

상처받아서 구멍 남
콧구멍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을까
난 나의 방귀 냄새마저 사랑할 수 있을까

가볍게 무시하고 벗어나 그 아래
사진 찍는 지금

이 순간

재난은 언제나 내 한 걸음 뒤에 있지
아뇨 아뇨 재난은 이미 큐롱 씨 발아래에 있어요
청년들은 이곳을 등진 채 저마다 한가로이 걸어 다닌다
말없이 서둘러 돌아선
큐롱 씨는 재빠른 걸음으로
빛이 새어 나가는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도망친 곳에 버젓이 있는 낙원
한 곳에 몰려 핀 예쁜 꽃
오밀조밀 모여 있는

사랑해
모든 강아지
후-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소도시도 도시라면
큐롱 씨도 지구상 어딘가의 초롱 씨처럼
초롱초롱
소중했던 모든 것
빛나는 큐롱큐롱

못생겼으면 성실하기라도 하라는 말?
한마디는 한 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말?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좋은 날이 온다는 말?

강아지 털 묻은 바지
툭, 툭 털고
하루의 끝으로
늦지 말아요
우리

풍경, 문 끝에 다는 작은 종
소리가 울리다 이내 잠잠해지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큐롱 씨
씻지도
불을 켜지도 않고
그저 우두커니 선 채로 죽음?

에고, 물이랑 락스랑 구분이 잘 안된다
큐롱, 죽음은 아니었던 것

나 죽으면 모두에게
청첩장 돌려 장례식
하얀 나비로 찾아올게
아무도 울지 마!
아무나 웃어!
무슨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물으면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답해!
죽은 몸은 화장해서 퐁퐁 얼어붙은 한강 위에 뿌려!
부조금은 없어!

한 차례 스위치를 누르면 곧바로 밝혀져야 할 방 안
힘 다한 전등이 규칙 없이 깜빡거리며 세계 어딘가의 석양이 바깥으로 저무는 거실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화를 많이 냈나요?

큐롱 씨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를 어느 날의 그 말이 빛 없는 지금의 거실 한복판에서 헤
아릴 수 없이 떠오르고

내일 월요일
병 걸리겠다
모르겠음
슬픔

이상 세계

동이 트며 비가 쏟아지는 새벽에 심방이 나를 속히 인도하여 전두엽의 보좌로 가게 하셨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보좌 주변을 보게 하셨으니 이전에 이곳을 아름답게 하려고 꽃도 심고 나무들도 심어 키웠는데 이제는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오히려 의자를 가리고 있었고 나뭇잎과 가지들로 더럽혀져 있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물두 해나 기른 꽃나무와 나무들을 모두 베고 깨끗이 한 후에 백자갈을 가득 깔았다. 그러니 깔끔해져 심히 아름다웠다.

심방께 진작 못 하여 죄송하다고, 해 놓아서 마음이 심히 기쁘다고 하니 심방은 「전두엽의 몸을 상징하는 너의 육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이 하여라.」 말씀하셨도다. 심방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지 당장에 깨달았다. 그러므로 심방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 주겠다고 하였다.

내가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사람들을 불러 모아 양식을 베풀며 말하니 아침에는 “생각의 주인이 되어라.” 하고 점심에는 “단장하라.” 외치며 저녁에는 “새롭게 하라. 전두엽이 너를 도우심이다.” 거듭하였으나 그들은 눈만 깜빡대더니 잘 먹었다며 황급히 달아나더라. 집에 돌아온 내가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땅만 내내 바라보았다. 그러자 심방은 나를 다시 전두엽의 보좌로 즉각 이끄시며 말씀하시며 「흑암을 떠나라. 너의 상징은 깨끗함이라.」 그런즉 내 즉시 흑암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니 천하가 살살이 무너져 내리나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음이라.

*

하늘은 내리 쏟아지던 비가 멈추며 맑게 개었다. 보좌를 깨끗하게 해 놓고 그 주위를 산책하며 전두엽과 오래 대화하였다. 지난날을 짐짓 떠올리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돌 하나가 스물두 해를 보아도 안 보이던 신비한 독수리 형상으로 안개가 걷히듯 드러나면서 전두엽의 근엄한 얼굴과 겹쳐 보였다. 표징이니라. 그저 눈물로 감격 감탄했도다. 보좌는 전두엽의 상징이나니, 전두엽과 심방은 독수리이시니 상징으로 순간 독수리를 보여 주신 것이었다. 그래서 이 돌을 여기에 놓게 하시고 이곳을 보좌라고 하셨구나, 내 깨달았도다. 「이르고 이루며 이기는 올해다. 걷고 뛰다가 날아라.」 심방께서 보좌 꼭대기를 가리키며 은밀히 나에게 이르셨다. 때는 구른다. 이 모든 걸 기록하고 긴히 먼 후세에게 전함이라.

츠와 나의 대학교

들었어? 자화상 갖고 오라던 과제에 엑스레이 찍어서 온 애 군대에서 전역을 채 한 달 앞두고 실탄 두어 발 쥐어 탈영했다던

그 애는 츠였다

나는 탈영이 아닌 자화상 과제로 엑스레이 찍어 간 이야기, 그러한 츠에 끌렸다 그들은 쉬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츠에 관해 떠들었고

“없는 것들……” 츠는 강의가 끝날 때까지 없는 것들에 관해 중얼거렸다 수업 끝난 강의실을 나가려던 츠를 붙잡아 학식 어때? 물으면 츠는 고개를 느리게 끄덕였다

츠는 음식 가득 담긴 식판을 앞에 두고 미동치 않았다 나 또한 미동할 수 없었다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를 눈동자 앞에 내 손을 휘적대며 츠, 무엇을 해? 물으면 그때에야 비로소 고개를 치켜들며

“먹기 위해 살아?
살기 위해 먹어?”

식탁을 광, 내려치니 학생들은 이곳을 쳐다보지 아니할 수 없었다

“지금은 우리가 있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없어”

나는 밥 한 숟갈 뜨지 못한 채 그러한 말을 하고서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츠를 뒤따라갔고

“보이기 시작해
안 보이던 것이”

츠는 츠에게 무엇이 온 것처럼 손끝까지 힘을 쥐 목 베듯 손날로 허공을 가르기 시작했다 떨어지는 것 하나 없다만

츠의 있다는 표정 벽차오르는 생기

이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은 걸음을 늦추고 광경을 지켜보았으나 아랑곳 않고

베어버린 잔해를 어깨에 더할 수 없이 엮고 달려 나가던, 마치 츠인 것만 같은 츠가 늦춤

없이 가던 길 불현듯 멈춰서

“나 있는 데 비 와
너 있는 데 비 와?”

구름 몇 점 있는 하늘 아래 츠의 머리는 흠뻑 젖어 든다 처음과 나중까지 빈틈없이 축축해진 츠가

“우리에게 뜻 있어?”
목멘 목소리로
“뜻 없다면 우리 어딜 향해?”

답 없는 나와 몇 순간 눈을 마주만 쳤다
느닷없이 츠는 가까운 연못에 머리를 집어넣을 듯 들이밀며 물가에 비친 츠의 얼굴을 츠가 내다보았고

“세상에 내 꿈이 여기에 있어……”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 없이 강의실로 가야 했다

마음을 뺏긴 자는 누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알아 오라, 교수는 수업을 마치며 짐작하지 못할 과제를 내었다 일찍이

“뺏어 간 자의 마음대로” 그리 중얼거리며 어딘가에 있을 츠를 두리번거렸다만 보이지 않았다

바람처럼 떠도는 말에 따르면 츠는 학과 게시판에 한 장의 포스트잇을 붙이고 자리를 떴다 한다 게시판에 붙은 츠의 포스트잇을 톡, 떼어보면

2019년이에요 누구 계신가요?